

지역 인재 양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립창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건의

2026. 07



창원상공회의소

지역 인재 양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립창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건의

I. 현황 및 문제점

- 창원을 비롯한 경상남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조업 중심 지역으로 기계, 방산, 조선, 항공우주, 원전, 소재·부품·장비 등 국가 핵심산업이 집적되어 있으며, 산업 고도화에 따라 방위산업 기술보호, 원전 안전규제, 국제통상·수출통제, 지식재산권 분쟁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법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지역 내 전문 법률인력 양성 기반이 부재한 실정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지역별 현황]

권역	시·도	설치 대학 수	대 학 명
수도권	서울	12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경기	1	아주대
	인천	1	인하대
충청권	대전	1	충남대
	충북	1	충북대
호남권	광주	1	전남대
	전북	2	원광대, 전북대
대경권	대구	1	경북대
	경북	1	영남대
부울경	부산	2	동아대, 부산대
	울산	0	-
	경남	0	-
강원·제주	강원	1	강원대
	제주	1	제주대
합 계		25	

※ 2026학년도 기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지 기준

- 현재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서울에 12개교, 경기·인천에 각 1개교 등 수도권에 14개교(56%)가 집중 배치되어 있으며, 비수도권 11개교도 부

산(2개교), 대구(1개교), 경북(1개교), 대전(1개교). 충북(1개교), 전북(2개교), 광주·강원·제주(각 1개교)에 분산되어 있을 뿐, 경남지역에는 단 한 곳의 법학전문대학원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

※ 별첨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지역별 현황

- 현재 경남은 인구 300만 이상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임. 이로 인해 경남지역 우수인재들은 법학교육을 받기 위해 수도권이나 타 지역으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지역 정주인구 감소와 지역경쟁력 약화로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임.

지역별 인구만명당 변호사 수 현황

지역	인구 만명당 변호사(2026년)
서울	32.1
경기도	1.6
인천	2.9
강원	1.5
충북	1.8
대전·충남·세종	2.5
대구·경북	2.0
부산	4.4
울산	2.5
경남	1.6
광주·전남	2.5
전북	2.2
제주	3.0
평균	7.6

- 출처 : 대한변호사협회, 통계청

- 아울러 경남은 인구 만명당 변호사 수가 1.6명(2026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7.6명)의 5분의 1, 서울(32.1명)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함. 이처럼 지역 내 변호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기업 법률자문,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법무 역량, 지역 주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역 산업 경쟁력 약화와 주민의 사법적 권익 저하로 직결되고 있음.

- 경남지역 내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은 단순한 교육기관 확충을 넘어 고급 법률 일자리 창출,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산업-법률 융합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경남 지역 국립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경우, 지역 산업계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산업 특화형 법조인을 양성하고, 나아가 지역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주민의 법률 접근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창원은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창원지방법검찰청 본청, 경상남도청까지 소재한 경남의 법조·행정 중심 도시임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이 전무하여, 법조 수요를 뒷받침할 법률 전문인력 양성 기반 자체가 갖춰지지 않고 있음.

II. 건의

- 이에 경남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인재 양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창원대학교 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26년 7월 6일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최 재 호

